

문서번호	금천예술공장-596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5.11.02.
공개여부	공개

★팀원	매니저	창작지원본부장	대표이사	
협 조				

2015 금천예술공장 제 6회 오픈스튜디오 및 기획전시 결과보고

2015 금천예술공장 제 6회 오픈스튜디오 및 기획전시 결과보고

금천예술공장 6기 입주작가의 개성 있는 스튜디오 오픈 및 2009-2014 6년동안 제작된 도시리서치 프로젝트 기획전, 다채로운 개막식 퍼포먼스 기획을 통해 입주예술가 활동의 보고행사를 넘어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및 연례 지역 페스티벌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자 준비한 "2015 금천예술공장 제 6회 오픈스튜디오 및 기획전시"관련성과를 보고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행사 취소 결정. 아래 성과 내용은 계획 대비 실현된 성과부분을 보고하고자 함

I 사업 개요

□ 기본개요

- 사업명 : 2015년 금천예술공장 제 6회 오픈스튜디오 및 기획전시
- 일시 및 행사 개요
 - 1) 개막행사 : 2015.06.11.(목), 18:00~20:00 → 취소
 - 2) 제 6회 오픈스튜디오 : 2015.06.11.(목)~06.14.(일), 10:00~18:00 → 취소
 - 3) 기획전시 : '우글거리는 미로들', 2015.06.11.(목)~06.30(화), 10:00~18:00 → 취소

구분	주요내용	일정	비고
개막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작가&전문가 1:1 네트워크파티 (비공개) 	06.11. 15:00~17:00	※ 행사 준비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행사 오픈 5일전 부득이하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행사 전면 취소 결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환영사, 감사, 입주예술가 소개 등) • 개막축하 입주작가 작품상영 및 퍼포먼스 - 리오 샴리즈 '공백의 얼굴들' - 태이 '잠물결II' - 권혜원 '구로극장' - 김세진 '일시적 방문자' - 옥정호 '손글놀이' 	06.11. 18:00~20:00	
오픈 스튜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기 입주작가의 작업스튜디오를 전시장으로 연출한 20개의 개별 스튜디오 전시 구성 	06.11.~06.14. (4일간)	
기획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리서치 기획전시 '우글거리는 미로들' 	06.11.~06.30. (2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커뮤니티 참여 '금천메르스-예술공장 스캔들' 	-	

- 장소 :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의 20개 스튜디오 및 금천예술공장 전역
- ※ 19개 스튜디오, 1개 외부 상설 스튜디오

● 참가인원 : 총 7개국 26명(팀)

1) 오픈스튜디오

- 6기 입주작가 : 김기라, 신지선, 이예승, 박광수, 권혜원, 이수진, 이로경, 여다함, 연기백, 김세진, 이혜인, 김동조, 금천미세스, 옥정호, 베레나 이셀(Verena Issel, 독일), 리오 샴리즈(Lior Shamriz, 이스라엘), 사라 가스만(Sara Gassmann, 스위스), 팅 차옹 웬(Ting Chaong Wen, 대만), 디아나 아투스 (Diana Artus, 독일), 가다 다(Ghadada, 사우디아라비아) **총 6개국 20명(팀) 참여**

2) 도시 리서치 기획전시



- 2009-2014 커뮤니티&리서치 프로젝트 참여작가 및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 박광수, 신지선, 안정주, 임흥순, 연기백, 정연두, 차재민, 태이(Taey lohe, 영국), 안동일(찬조출품) **총 2개국 9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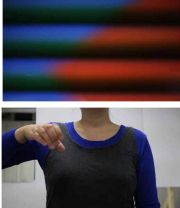

● 주최, 주관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II 세부추진 내용

□ 개막행사 → 취소

● 세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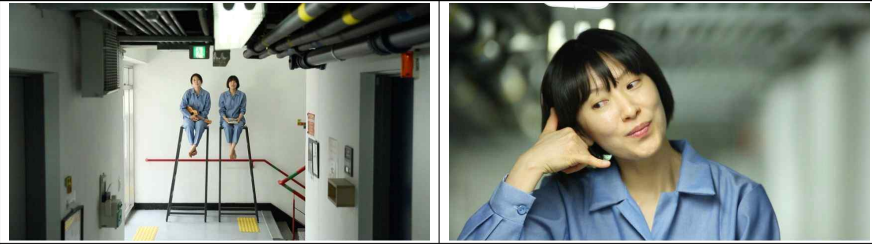
연번	작가명/제목	내용	이미지	전시장소
1	리오샴리즈 (Lior Shamriz) /공백의 얼굴들	금천예술공장 창고동에서 상영될 영화로, 제 65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이다. 한국에서 촬영한 이 작품은 행사의 도입부에 일부 상영되면서 이번 행사의 막을 열 예정이다.		창고동 작업실
2	태이 (Taey lohe) /잠물결 II	이 작업은 일곱 개의 잠의 공간, 비디오 설치, 실험적인 음악과 라이브 퍼포먼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보여지는 작업이다. 지난 2013년 금천 레지던시를 통해 선보인 도시 리서치 프로젝트 전시의 설치 작업 '근접 수면 공동체'와 오프닝 퍼포먼스 '잠물결'의 두 번째 버전이다. 수면부족 도시의 사람들의 깨어남과 잠들을 공공의 공간에서 선보임으로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한 삶과 사적인 공간을 재현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만드는 청각적, 시각적 재생과 심표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창고동 작업실

3	권혜원 /구로극장	일종의 '워킹 씨어터' 형식으로, 금천예술공장 곳곳에 약 6명의 배우들이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의상과 분장을 재연한 채 영화 속의 대사들을 연기하는 퍼포먼스이다. 배우들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기도 하고, 복도 등을 걸어다니기도 한다. 배우들은 영화 속에 재연된 구로공단의 인물들을 연기하며, 정해진 영화 속 대사만을 반복적으로 재연한다. 또한 이들은 때로는 녹음된 영화 속 대사에 맞춰 립싱크 연기를 펼치기도 하고, 대사를 직접 주변의 관객들에게 재연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게 된다.		1층 로비
4	김세진 /일시적 방문자	영화의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사운드, 영상이미지, 움직임에 관한 총체적 실험으로서의 퍼포먼스로, 작업의 과정은 철저하게 영화의 제작과정과 그 형식을 같이한다. 작업에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협업을 하게 되는데, 우선 작가는 작업의 근간이 되어주는 이야기로서의 텍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마이스트와 영상으로 만들고 전자음악 작곡가 그리고 폴리아티스트가 영상에 입힐 사운드와 음악을 제작하여 실시간으로 재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스튜디오 12
5	옥정호 /손금놀이	금천예술공장 주차장에서 오픈스튜디오 당일 열리는 퍼포먼스이다. 현재 심터 테이블과 의자를 거리의 '점집'처럼 꾸미고 테이블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한다. 퍼포먼스 상황은 작가의 스튜디오에서 이원생중계되며 스튜디오를 방문한 관객은 주차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손금놀이'를 시청할 수 있다. 영상은 손금보는 손님의 손과 나의 목소리만 중계된다.		외부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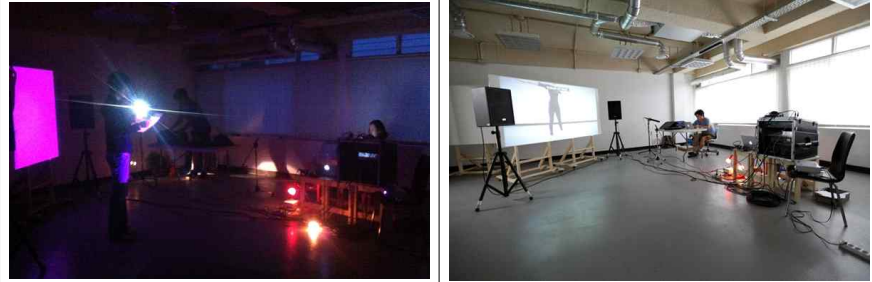
● 사전리허설 이미지



태이 - 잠물결 II



권혜원 - 구로극장



김세진 - 일시적 방문자

※ 옥정호, 리오샴리츠 작가의 경우, 행사 당일 리허설 및 프로그램 진행 여장이었으므로 리허설 이미지 없음

□ 오픈스튜디오 →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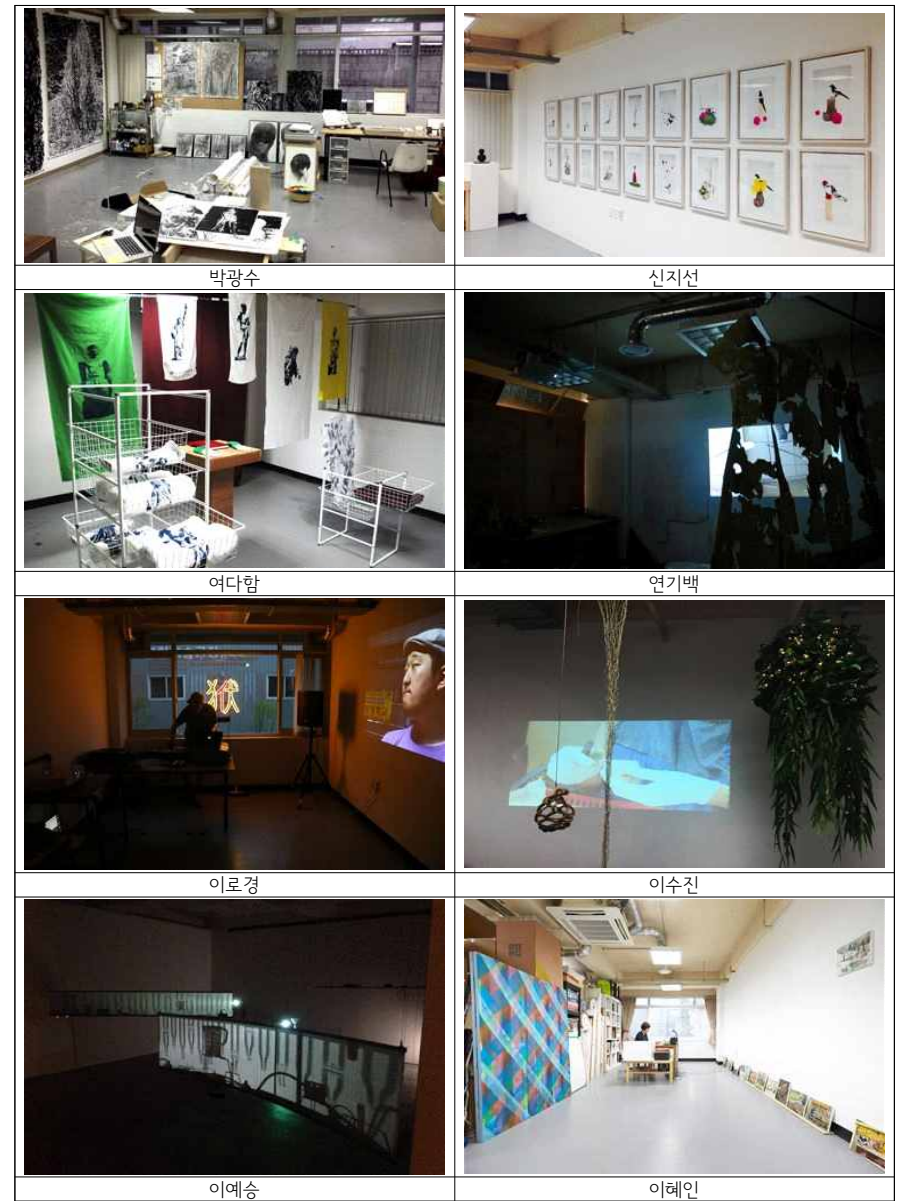
● 오픈스튜디오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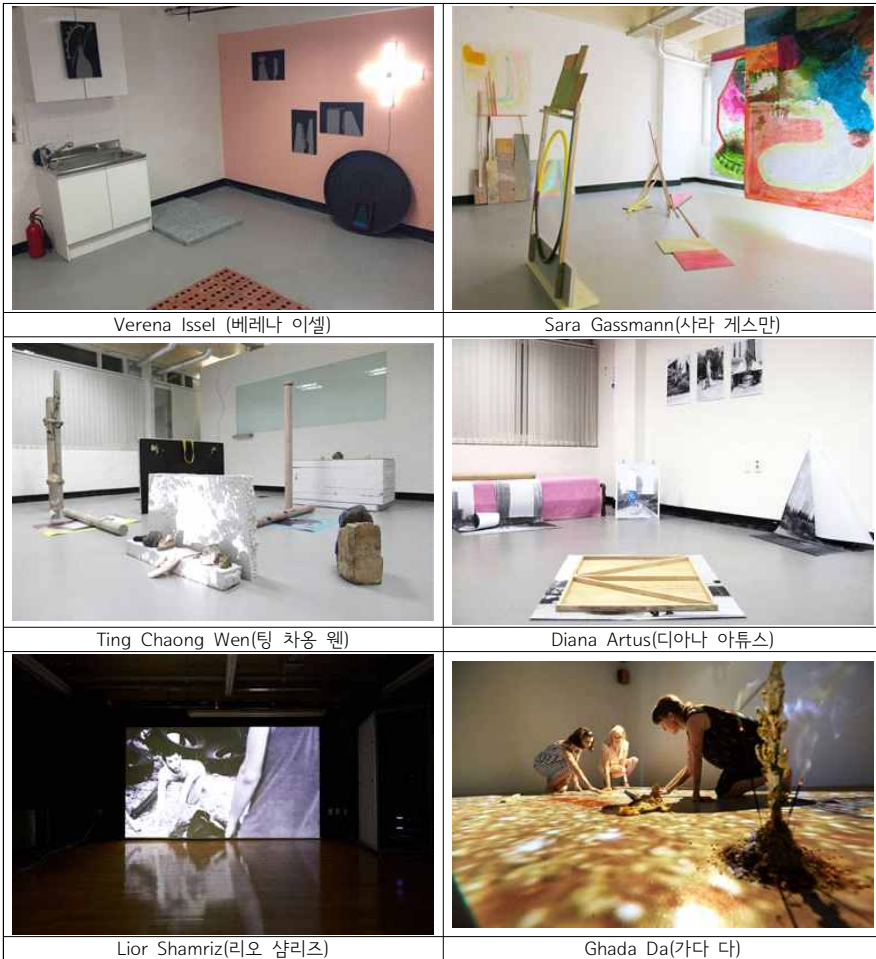
연번	작가명	국적	내용
1	가다 다 (Ghada da)	사우디아라비아	금천예술공장에서 그녀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 그녀가 관찰한 것들과 소리를 재해석한 설치작업
2	권혜원	한국	금천예술공장 스튜디오 5에서 듣는 과거의 소리들 - 공간에 저장될 수 있는 삶의 흔적은 어떤 것일까? 1975년 완공된 건물의 과거 속에서, 코일 공장이었던 70년대와 인쇄공장이었던 90년대, 그리고 작가들이 머물렀던 스튜디오의 현재까지. 과거의 사실과 기억을 통해서, 이 공장이 위치한 구로지역의 한 순간을 현재로 불러들이는 작업
3	금천미세스	한국	2010년 처음 교육생으로 참가해 2015년 지금 주민작가로, 커뮤니티 그룹으로 금천예술공장을 드나들며 지내온 금천미세스 5년의 이야기를 전시
4	김기라	한국	관객에게 <예술의 진실성>과 <사실과 진실사이>에서의 끊어진 심리적 동기를 추적하도록 유도하며, 그 상상력의 은유적 시각 형태로 이뤄진 비디오작업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움과 비극, 쾌락과 분노를 느끼게끔 유도
5	김동조	한국	김동조 작가의 조형작품이 스튜디오 내 중앙에 설치되는데 이는 작가 이 유선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공동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현대적 시각을 소재로 하여 제작됨. 이 작업은 공동주거 공간을 오브제로 제작하여 분리된

			움직임을 위주로 가상 공간을 재구성하며, 지하 밴드실에 김동조 작가와 신남 전기의 공동으로 제작된 작품 "창"을 선보임. 관객이 위치한 공간에 대한 인지와 동시에 타공간을 향한 관객의 감정을 들추고 이러한 가상 공간과의 연결통로를 형성하기 위해 본 작품과 벽 사이에 일렁거리는 빛을 두는 작업
6	김세진	한국	연작 <잠자는 태양>의 마지막 영상으로, 대전 KTX본사 뒷 편에 십 여년째 개발이 보류되어 슬럼가로 전락해 버린 그러나 한때 번성했던 구도심의 폐허를 소재로, "과잉"과 "속도" 이면에 존재하는 "결핍"으로써의 도시의 심리적 풍경을 문학적 장르(Sci-Fi)의 구조를 바탕으로 재구성
7	디아나 아투스 (Diana Artus)	독일	디아나 아투스는 서울에서 촬영한 다양한 크기의 사진 출력물들로 만든 설치작업과 'A Korean Alphabet'이라는 새로운 아티스트 북도 선보임
8	리오 샴리츠 (Lior Shamriz)	이스라엘	리오 샴리츠는 수필적 관점의 영상과 퍼포먼스를 영화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별해서 스튜디오와 지하 워크숍 룸에서 상영
9	박광수	한국	박광수의 관심은 일상의 물리적인 현실에서 비껴나간 의식의 틈을 공상으로 매우는 것. 드로잉으로 남게 되는 공상의 결과물들은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되기도 하고, 대상을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굽적거리는 기록으로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 공상의 결과물들인 드로잉을 스튜디오에서 선보임. 예전에 끄적였던 낙서들, 수줍은 신문광고나 보도 사진등의 뒤엉킨 이미지들을 트레이싱지와 펜을 이용하여 복사, 반전, 부분 혹은 전체를 떼어내어 접붙이며 이야기를 만든 드로잉들은 스튜디오 외 내부 벽화로 선보임
10	베레나 이셀 (Verena Issel)	독일	베레나 이셀의 설치작업은 서울에서 찾은 조각들로 만든 개별작품들로 구성됨. 입주작가 사라 게스만과 협업하여 한국 전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양인 여성의 시각을 나타낸 작품이 2층 복도에 전시
11	사라 게스만 (Sara Gassmann)	스위스	'지적 이미지는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안다. 변화와 변형의 때가 곧 자신에게 도래할 것을-안다. 그 언젠가는 고요함 속에 그 자체로 존재감을 드러낼 시간을 조용히 기다린다.' 입주작가 베레나 이셀과 협업하여 한국 전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양인 여성의 시각을 나타낸 작품이 2층 복도에 전시
12	신지선	한국	서울 곳곳의 장소에서 펼쳐진 이야기와 작업들이 '각주달기'가 되어 서울의 작은 지형도가 되고, 재정의하는 기회를 마련
13	여다함	한국	각기 다른 호소를 하고 있는 동상들을 모아놓고 그 포즈를 허물어 놓기 위해 2014년에 제작한 '무회한 정신 안무집' 중 한 꼭지를 보여주는 작업. 동상에 의해 기념되는 당대의 정의가 한편으로 당시의 이익을 보호하는 갑옷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담고 있으며, 동상을 허물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다 작업으로 표현
14	연기백	한국	스튜디오와 3층 복도 틈에 설치된 두 가지의 제시된 설치 작업에 대한 관람자 및 참여자들의 경험과 이야기들을 통해 대상 방법적인 관찰을 시도
15	옥정호	한국	오픈스튜디오 당일 이루어지는 '손금보기' 퍼포먼스를 스튜디오에서 이원생중계를 하고 결과물은 전시기간동안 전시
16	이로경	한국	밤이 사라진 지금은 빛으로 가득 찬 불균형한 세계. 이 세계의 균형은

			밤을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시각과 지식에 가려졌던 짙은 어둠이 다시 돌아와 당신의 밝은 낮과 마주할 것이라는 주제의 작업
17	이수진	한국	이번에 선보이는 작업은 빠른 산업화,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는 특정한 사회와 공간, 그 너머에 엿보이는 개인과 이면의 모습들, 특수한 삶의 코드들, 에너지, 시간, 정신세계, 신념 등과 관련한 고민을 통해 이루어짐
18	이예승	한국	동시대를 감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미디어 환경 속에서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대규모의 미디어 설치 방식으로 제시. 손자수, 드로잉을 이용한 시간 집약적이고 섬세한 아날로그적인 방식에서부터 영상이나 인터랙티브를 이용한 디지털적인 방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식을 넘나드는 작업을 선보임
19	이혜인	한국	이혜인은 몇 년 전 까지 기억과 상상에 근거한 다소 관념화된 회화의 이미지로써 표현하였고, 현재는 실제 장소에서 그 지역을 관찰하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회화, 설치, 비디오 등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현장에서의 무목적적인 떠돌과 선입견 없는 관찰을 통해 얻어지는 질문들과 그것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회화, 현장에서 쓰여진 도구들, 글, 영상 등의 요소들을 사용하여 풀어어나가는 작업
20	팅 차웅웬 (Ting Chaong Wen)	대만	고대에서 현대까지, 여러 시대 사람들의 각각의 거대한 석(石)문화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내포함. 그들의 부재가 오늘날 물질과 시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작업에 영감을 주며 그것을 작업으로 표현

● 스튜디오별 이미지





※ 김가라, 옥정호의 경우 행사 취소 통보 당일(6월 8일)까지 스튜디오를 조성하지 않았으므로, 스튜디오 사진 없음

● 부대행사

1) 전문가 비지팅(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진행) → 진행

- 일시 : 06.11.(목) 15:00~18:00
- 목적 : 언론, 기관, 상업갤러리, 비평 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작가의 작업역량 강화 지원 및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작업 홍보 기회 제공

- 분야별 초청 전문가: 김성원(전시기획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흥철(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백기영(경기도미술관 학예실장), 홍경한(경향 <article> 예술잡지 편집장), 채영옥(로렌스제프리스 과장), 임근혜(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 민병직(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이아름(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함영준(커먼센터 디렉터), 김해주(독립큐레이터) 총 10명



2) 주민도슨트 프로그램 '금천 미세스-예술공장 스캔들' → 취소

- 일시 : 06.14.(일) 14:00~16:00
- 내용 : 지역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작가와 주민과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대

화 프로그램

- 지역 주민에서 2012년 하반기 금천예술공장 입주 커뮤니티가 된 금천미세스가 직접 입주 작가들과의 만남을 거쳐 선정된 작가 1인(신지선)과 기획하여 06.14. (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메르스로 인해 행사 취소

□ 도시 리서치 기획전시 → 취소

● 전시 구성

- 1) 전시명 : '우글거리는 미로들'
- 2) 일시 : 2015.06.11.(목) ~ 06.30.(화) 총 20일간
- 3) 장소 : PS333(다목적홀), 창고동 작업실(공동작업실) 등
- 4) 참여작가 : 박광수, 신지선, 안정주, 임흥순, 연기백, 정연두, 차재민, 태이(Taey lohe, 영국) 총 2개국 8명(팀)
※2009-2014 커뮤니티 리서치 프로젝트 참여작가 및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 5) 작품수 : 총 8여 점
- 6) 작품구성 : 2009-2014까지 6년간 금천예술공장에서 진행한 지역과 커뮤니티 기반의 리서치를 제작 지원하는 '커뮤니티 리서치 프로젝트'를 재조명해보는 전시. '우글거리는 미로들'은 금천예술공장이 위치해 있는 인근의 대규모 산업단지인 구로 지역을 주제로 선보이는 도시 리서치 전시로 구로 공단, 노동자, 재개발 등의 연속선상에 놓인 영상, 설치 작업들로 구성
- 7) 도시 리서치 기획전 큐레이터 초청 : 올해 커뮤니티 리서치 프로젝트 사업을 '도시 리서치 기획전'이라는 주제아래 오픈스튜디오 기획전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두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를 졸업하고 아르코 독립 신진큐레이터 선정, 조선일보 신춘 문예 미술평론 으로 당선되고 다수의 전시 기획 경험이 풍부한 큐레이터 이대범을 도시 리서치 전시의 기획자로 초청하여 지난 5년간의 커뮤니티 리서치 프로젝트 사업을 재조명 하고 구로 지역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 내고자 함

● 전시 세부내용

연번	작가명	기수	장르	제목	내용	장소
1	박광수	6기 입주작가	영상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	'오늘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주제로 금천 동일일고학생들과 협업하여 각자 일상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해 한편의 협동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프로젝트	PS333

2	신지선	6기 입주작가	영상	나무제례	가리봉 측백나무 축제를 통해 전통적인 나무제례 의식과 축제의 혼성, 짧은 시간 이어붙이기, 지역에 유입된 이민자들 융합하기 등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다크형식 작업	PS333
3	안정주	3기 입주작가	영상	Breaking to Bits	도시의 철거현장에서 인부들이 부지런히 창틀과 바닥재를 뜯어내고, 굴삭기로 외벽을 허무는 소리와 영상을 리드미컬한 음악으로 변주해 낸 영상 설치 작업	PS333
4	임흥순	27/3기 입주작가 2012 커뮤니티 리서치	영상	금천블루스	주부 8명으로 결성된 '금천미세스'와 이후 새롭게 참여한 주부들이 '금천구와 여성 그리고 노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거 (구로공단, 이주, 여성, 노동자의 삶)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연결해보는 영화 제작 작업	PS333
5	연기백	57/6기 입주작가 2014 커뮤니티 리서치	영상	도배사(士)	가리봉 시장 근처에 위치한 옛 여공들이 거주했던 작은방 한 곳에서 남겨진 흔적들과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작업	PS333
6	정연두	2011 커뮤니티 리서치	영상	남서울무지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남서울 무지개 아파트'단지에 '미술작가가 무료로 가족사진을 찍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홍보 전단지만 만들어 배포한 후, 아파트 주민 중 희망하는 세대에 한하여 작가가 직접 집을 방문하여 촬영한 작업	PS333
7	차재민	4기 입주작가 2013 커뮤니티 리서치	영상	미궁과 크로마키	케이블 설치 노동자를 중심으로 섬세한 카메라 움직임과 크로마키 기법을 통해 케이블을 설치 하는 손노동을 분할하고 재배열한 영상 작업	PS333
8	태이 (Taey lohe, 영국)	5기 입주작가 2013 커뮤니티 리서치	영상/설치	근접수면공동체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는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일상적 수면을 떠올리도록 하는 작업으로 한강의 한 지류인 안양천에 대한 기록을 영상 설치를 풀어낸 작업	창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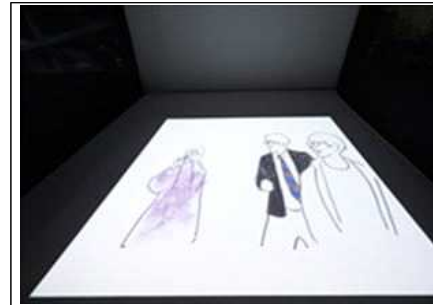
● 큐레이터 전시 에세이

[우글거리는 미로들]	기획 이대범
* [우글거리는 미로들]은 지난 6년간 금천예술공장의 커뮤니티&리서치 프로젝트의 결과이자, 지향점이다.	
* [우글거리는 미로들]의 주 대상인 구로구에는 신도림동, 구로동, 가리봉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궁동,	

온수동, 천왕동, 향동, 구로동, 수궁동이 있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의 주 대상인 금천구에는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이 있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의 기획자는 구로구/금천구와 인접한 양천구, 영등포구에서 태어나 자란 그래서 그 '거리'만큼 구로구/금천구에 대해 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대범이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의 참여작가는 일정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 1동 333-7번지'에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했던 박광수, 신지선, 안정주, 연기백, 임홍순&금천미세스, 정연두, 차재민, 태이(Taey lohe)이다. (단, 정연두 작가의 [남서울 무지개]는 2011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공모로 참여했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에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다니며 서울을 체화하는 안동일이 그 흔적을 창조출품한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은 (다양한 의미에서) 구로구/금천구에 대한 기록이자, 작가 자신에 대한 기록이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은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만남에서 발생하는 대화이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은 상징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미분류'의 세계를 지향한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은 '절대적 목소리'가 주관하는 자명한 대화보다는, 혼란스럽지만 탈주의 유쾌함을 지니는 수다이고자 한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은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좀 더 많은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은 거기에 아무 것도 없는 듯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고자 한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은 정전된 방에서 두려움을 느끼다가, 아니 두려움을 견디다가, 스스로 어두워지고 하는 운동이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은 자신의 능력이 너무도 여리고 희미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에는 10개+1개의 방이 있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의 구획된 각 방의 벽은 천으로 주변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뒤섞임'을 수용한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의 바닥은 작품이 투사되는 공간이며, 관객이 거니는 공간이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에 새겨진 흔적은 지워져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촉(觸)'이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에는 금천구 소재 동일여자고등학교 윤채원, 이영민, 김승혜, 김연재, 장세희, 주소정, 김민지, 최정원 학생이 일상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제작한 드로잉 애니메이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박광수 작품)이 있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에는 구로구 가리봉의 촉백나무 축제를 통해 지역의 각양각종의 이야기를 듣는 [나무제례](신지선 작품)가 있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에는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Rolling Papers](안정주 작품)가 있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에는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와 거주자의 살 사이를 중재하는 종이를 살피는 [도배사(土)](연기백 작품)가 있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에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과거 구로공단이라 불렀던 이곳의 역사를, 그리고 이곳에 거주했던 여성 노동자의 삶을 매만지며 만든 영화 4편(굴레, 미싱킴, 피아노, 시간버스) [금천블루스](임홍순&금천미세스 작품)가 있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에는 금천구 시흥동 109-1번지 남서울 무지개 아파트의 동일한 평수에서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남서울 무지개](정연두 작품)가 있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에는 케이블을 설치하는 손과 설치 동작은 같지만 노동 가치가 거세된 손을 병치하여 '노동'을 어떻게 감각하는 지를 묻는 [미궁과 크로마키](차재민 작품)가 있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에는 잠들지 못하는 도시에 수면의 땀목 [잠물결II, 근접수면공동체](태이 (Taey lohe) 작품)이 있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에는 지난 작품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이전의 '과정'이 있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에는 구로구와 금천구를 표상하는 단어들이 우글거린다.
- * [우글거리는 미로들]은 지도의 자명함 보다는 미로의 어리둥절함을 수용한다. 그러기에 어느 정도 도달했음을 말할 수 없다. 걷고 있을 뿐이고, 이만큼 왔을 뿐이다. 여전히 그곳은 우글거리고 있다.

● 전시 설치 이미지



박광수



신지선



안정주



임홍순



연기백



정연두



차재민



태이

□ 주요 추진 성과

● 사업 전반

- 1) 2009-2014 금천예술공장에서 진행한 커뮤니티 리서치 프로젝트를 재조명 해보는 도시 리서치 기획전 기획
- 2) 커뮤니티 리서치 전시를 오픈스튜디오 기획전과 연계하여 행사의 홍보 및 파급력 확대를 추진
- 3) 도시리서치 전시를 위해 기획능력을 갖춘 전문 큐레이터를 기용
- 4) 20개의 스튜디오 오픈 외에 워크숍 룸, 내부 벽면, 2층 복도 등을 이용하여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구성
- 5) 오픈스튜디오 행사 진행이 취소되었지만 예정대로 시각예술분야 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작가들에게 1:1 만남 제공을 통해 심도 깊은 본인의 예술작품을 홍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 광고 및 홍보 추진 결과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결과

프로그램	종류	제작수량	배포처	결과물 이미지
금천예술공장 6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 '우글거리는 미로들'	포스터A1	200장	미술계 관련인사, 문화 예술관련기관, 금천예술 공장, 내부 인근상가, 거리, 입주작가 배포	
	리플릿	1,500부	입주작가, 미술계 관련 인사, 문화예술관련기관, 지역주민, 인근 근로자 배포	

웹 초정장 (웹메일용)	2종 (국/영문)	금천예술공장 관련인사 이메일 명단 800여 명 발송 및 홈페이지 등 게시	
웹 배너	3종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네오룩 배너	
가로등 배너 (거리)	15세트 (2장 1세트)	구로디지털단지역, 독산역, 금천우체국 사거리 인근 게시	
현수막	3종	금천예술공장 외부 벽면 부착	

● 주요 보도 결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매체	노출일	헤드라인	링크	이미지
1 아주경제	2015.6.8.	금천예술공장, 11일부터 '6기 입주예술가 오픈 스튜디오'	http://www.ajunews.com/view/20150608100144559	
2 글로벌이코노믹	2015.6.8.	작가들의 작업현장 궁금하세요?...금천예술공장, 6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전격 공개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06081057496257054_1/article.html	
3 연합뉴스	2015.6.8.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메르스 여파로 전시 취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8/0200000000A*****8170600005.HTML?input=1195m	
4 아주경제	2015.6.8.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메르스 여파로 전시 취소	http://www.ajunews.com/view/20150608183623371	
5 tbs 교통방송	2015.6.8.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메르스 여파로 전시 취소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5&seq_800=10092082	
6 글로벌이코노믹	2015.6.9.	메르스 여파로 금천예술공장 6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행사 취소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06090731228386234_1/article.html	
7 아시아투데이	2015.6.9.	메르스 여파로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전시 취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609010005433	

IV 사업 평가 및 후속조치

□ 사업평가 및 후속조치

● 사업 평가

1) 오픈스튜디오의 경우 전년도 구성에 비해 다채로운 작품과 작업실 환경을

선보였으며, 스튜디오 뿐 만이 아닌 금천예술공장 내부 시설을 활용하여 작품을 선보인 것이 새로운 시도였으며, 관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 2) 작가들이 오픈 시간동안 자신의 스튜디오를 지킨다는 점을 전제로, 전시 시간에 맞춘 스튜디오 오픈 시간과 일수가 다소 작가들에게 길다고 느껴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지킴이 고용이나 날짜와 시간 조절 필요
- 3) 메르스로 인한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위해 완료되었던 스튜디오와 전시를 토대로 전문가와 입주작가와의 1:1 미팅 '전문가 비지팅'이 진행되어, 작가들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후속 조치

- 1)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이 행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비하고 있지 않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기존 작가들의 작업완료에 대한 제작비 지원등과 관련 재단 고문변호사와의 자문 진행)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행사 계획 중에 언급될 필요가 있음
- 2)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인해 6기 입주작가의 경우, 레지던시 기간 동안만 기획이 가능했던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상황임. 익년도 7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시, 6기 입주작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획전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 행사 취소로 인해 불용된 예산은 추후 금천예술공장 상상력 발전소 프로젝트 시, 추가 편성하여 사업 확대 진행 예정

V 예산 집행

□ 예산 집행

구분	금액
계획 시 총 예산(A)	73,000,000
행사 취소에 따른 실제 최종 예산(B)	59,887,090
집행액(C)	53,951,320
예산 집행률(B/C)	90%

붙임 : 1. "2015 금천예술공장 제 6회 오픈스튜디오 및 기획전시 운영계획" 1부.
2. 언론보도 세부 내용 1부. 끝.